□ 연구논문

평신도 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의 성격

안경승(Ph.D.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교수)

I. 여는 글

최근의 상담 접근 방법 중의 하나인 타문화 상담(Cross-Cultural Counseling)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유교 문화권인 한국에서 상담문화가 정착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1] 첫째, 근본적으로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를 꺼린다는 점이다. 특히 유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려움이나 아픔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참는 것을 미덕으로 보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성장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감정의 영역은 가능한 한 억누르고 의지적인 자기 통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상담의 도움을 회피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상당히 심각해 진 이후에나 비로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둘째, 자신의 사적인 비밀이 드러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런 불이익을 당하고 나면, 자신의 고백과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동양문화권에 있어서는 이런 실제로 겪게 되는 손해 이외에도 다른 걸

1) 일반 한국심리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대표적인 책이 최상진, 『한국의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0)이다. 최근에 있었던 한국 복음주의 상담학회 발표 논문 역시 이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한재희, "한국목회상담을 위한 문화적 접근," 한국복음주의학회 상담분과발표 자료, 2004년 4월23일.

림돌이 있다. 자신의 체면과 함께 사회생활에서의 권위와 영향력이 상실된다는 불안이다. 이는 수치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노출을 극히 제한하는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담을 받는 다는 것을 오점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한다.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는 것이 마치 자신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왜곡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더 나아가 상담자를 찾는 것이 자신에게만 부끄러운 것일 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유교 문화 대신에 서구 문화적 영향력이 정신과 실체를 통해 곳 곳에 파급된 현금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개인과 공동체에 요구되는 내, 외적인 기준이 많다는 점에서 나눔이 생각하는 것 만큼 쉬운 곳이 아니다. 스캇 펙은 이렇게 현대 교회를 평가한다. "우리는 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미소 짓고 예절바르며 다정하고 밝은 사이비공동체로 만들려 한다. . . . 문제는 그런 것은 진정한 공동체와는 상관없는 예의바른 위선일 뿐이라는 것이다."[2] 성도들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담긴 고통이나 개인적 사안들을 목회자를 포함한 상담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상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적지 않은 주변의 목회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목회 상담자로서 어떤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피상담자가 자신의 사정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나중에 교회를 떠나기가 쉽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치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낸 후에 밀려오는 수치와 부담감이 그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비록 목회자만이 아는 사실이라고 해도 자신의 체면에 금이 갔다는 느낌은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취할

2) 스캇 펙, 김예숙, 김예자 역,『평화의 북소리』(부산: 자유인공동체, 1995), 362.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평신도 상담이다. 동양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상호 간의 강한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돕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개방성, 라포 등을 피상담자에게서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이미 신뢰감이 형성 된 가족 구성원들이나 친구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 끼리 돕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전통적인 관습이요 인간관계의 기초로 인식하는 것을 보게 된다.[3] 비록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서구 기독교 상담학계에서도 이런 현실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평신도 상담을 이야기하고 있다.[4] 전문 상담의 한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문 상담가에 의한 상담 치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반면에, 관계에 기초한 치유 방식 또는 가정교회나 셀 교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드러난 문제를 사랑을 갖고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더불어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지가 되어 줄 수 있는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5] 이런 의미에서 평신도 상담은 전통적인 상담인 개인적인 접근과 기술 방식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적 접근의 돌봄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

---

3) 강진령, "한국문화에서 상담활용의 비교 문화적 관점," 『한국문화와 상담관계 재조명』(서울: 한국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극동심연분회, 2003), 11.

4) S. Southard, *Comprehensive Pastoral Care* (Valley Forge: Judson, 1975), *Training Church Members for Pastoral Care* (Valley Forge: Judson, 1982); D. Detwiler-Zapp & W. C. Dixon, *Lay Caregiving* (Philadelphia: Fortress, 1982); K. C. Haugk & W. J. McKay, *Christian Caregiving-A Way of Life*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84); A. Schmitt & D. Schmitt, *When a Congregation Cares* (Scottsdale: Herald, 1984); R. P. Stevens, *Liberating the Lait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5); H. W. Stone, *The Caring Church*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3); Siang-Yang Tan, *Lay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7).

5) 전문 상담가와 평신도 상담가의 상담 결과에 대한 비교 연구에 대한 자료는 Siang Yang Tan의 *Lay Counseling* 에서 소개하고 있다. 최영기 역시 교회의 가정 공동체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치유적 효과를 그의 책을 통해 말하고 있다.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서울: 두란노, 1999).

는 많은 문제가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관계상의 문제를 훈련하고 치유 받는 곳으로서 공동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피상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결하고, 공동체를 통해 그 자신의 변화를 꾀하게 된다.

비록 평신도 상담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상담 전문가들의 연구와 동의가 하나로 모아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평신도 상담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해서 공동체 내에서 상담 자체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현상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본래의 사명 중의 하나인 성도 서로 간에 돌보고 이를 통해 상담문화를 수용하는 곳으로 변해가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평신도 상담, 아니 더 나아가 교회 내의 상담 사역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평신도 상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평신도 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성격에 중심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한국 교회 내에 상담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형태의 공동체로 성장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담과 관련된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치료 센터, 돌봄의 공동체,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로 구분해서 설명한다.[6] 이 세 공동체의 성격은 서로 보완적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가 효과적인 평신도 상담 사역의 장으로 정착하고 더 나아가 치유와 말씀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전개한다. 교회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진리로 권면 하며 치유하는 돌봄 공동체이어야 하고, 이 토양 위에서 상담 전문가나 평신도 상담가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제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

6) 크랩과 알렌더는 지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상담 모형을 격려, 권면, 교화의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로렌스 크랩, 댄 앨린더, 오현미, 이용복 공역, 『격려상담』 (서울: 나침반, 1986), 161-171.

II. 펴는 글

1. 치료센터와 돌봄의 공동체

많은 성도들이 마음과 영적인 문제를 가졌을 때, 상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친척이나, 친구, 동료교인을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교회는 목회자의 상담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공동체의 공감 아래, 비전문가들을 훈련시켜 적절하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의 터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회복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효과적인 상담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해준다.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교회와 기독교 치유단체가 이런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훈련과 도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전문적인 상담훈련기관과 대학원 과정의 기독교 상담학과가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통해 훈련받은 상담 전문가가 교회 안과 밖을 통해서 전문적인 치료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전문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가진 전문 상담요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도움이 다양한 문제를 가진 성도들에게 더욱 활발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전문 상담가에 의한 치유센터로서 교회가 기능하게 될 경우, 자칫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성을 가로막고 서로 지혜롭게 돕는 사역에 대한 오해와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이웃들을 돕는 사역이 특정한 기관의 훈련 받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과 시스템적 모델(System Model)

표1 치료적 모델과 돌봄의 모델

Medical Model	System Model
치료적 상담방법에 중점을 두고있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채택되고 적절하지 못한 사람은 소외된다.	사역을 통해 훈련되고, 낮아지고 열려지는 것을 강조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섬기는 것을 도전 받고, 그러는가운데서 상담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은사, 재능, 기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졌다고 증명이 되는 사람들을 선택한다.
치유에 대한 열정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을 지도자 훈련으로 동참하게 한다.	지도자 훈련의 장 보다는 공동체의 장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도록 한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피훈련자의 위치에서 탈락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필요를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
환자로 판명된 사람을 시스템 밖에서 다시 말해 시스템과 다양한 왜곡된 하위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자 시도한다.	전 시스템과 그 각 부분(구성원들)의 영향을 분별한다. 각각의 구성원은 진리, 열매, 그리고 은사 가운데 자라는 한편, 시스템은 좀 더 건강하게 될 것이다. 소그룹, 주일학교 분반, 예배가 좀 더 생명력 있게 된다. 수 십명의 상담 전문가를 훈련시키는 것 보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장로, 선생님, 설교자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훈련에 있어서 교육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적 접근방법	인간의 전인적 측면, 즉 마음, 뜻, 영에 공평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시스템을 통한 사회화를 강조한다. 이런 점들이 (a) 교훈적 가르침, (b) 토의, 묵상과 명상을 통한 반추, (c) 새로운 지식의 실체를 만지고 맛 볼 수 있도록 하는 체험, (d) 훈련목표에 얼마나 잘 따르게 되었는지와 성경의 기준에 접근한 정도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 (e) 기도, 예배, 성경공부의 초자연적 교통 등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
도움을 구하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있어 자질 있는 후보자를 충분히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전 성도들과 특히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담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회복되어 가면서 자질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간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과 같은 곳이다.[7] 그 안에서 부족하고 연

약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교회는 구성원들 하나 하나가 사랑 안에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여 한 몸 되라고 허락하신 확장되어진 가정공동체이다. 평신도 상담은 이런 돌봄 공동체에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짐을 지는 현장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치료센터로서의 교회와 돌봄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Sweeten은 교회의 치료센터적 개념을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로, 그리고 돌봄 공동체의 개념을 시스템 모델(System Model)로 설명하면서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표 1).[8] 그는 환자로 판명된 사람(Identified Patient)이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1) 공동체 자체가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될 때, 환자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2) 환자의 이웃과 가족원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서로 간에 만남을 가짐으로써, 회복의 모델과 격려가 되어지며 역기능성을 예방하기도 한다. (3) 치료의 가장 강력한 형태는 돕는 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훈련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배움의 현장이 치료의 현장이 되어진다.[9]

2) 통제의 영성(Spirituality of Control)과 긍휼의 영성(Spirituality of Compassion)

Olthuis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진단과 치료에 근거해서 접근하는 전문가와 긍휼(compassion)에 근거해서 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의료적 접근으로 피상담자를 접근하는 것이 심리치료사를 신적 존재로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전문 치료사역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치료

---

7) 로버트 뱅크스가 이런 관점에서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모습을 연구했다. 로버트 뱅크스,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역 (서울: IVP, 2000); 『1세기 교회의 예배모습』, 장동수역 (서울: 여수룬, 1999).

8) Gary R. Sweeten, "Lay Helper and the Caring Commun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6 (2, 1987); 15.

9) Sweeten, 15-16.

자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결국 실패와 상처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10] 그는 상담에 있어서의 중점 되는 요소들이 치료에서 돌봄으로, 통제에서 연결로, 전문가에서 동역자로, 우위적 힘에서 함께 하는 힘으로, 전문지식에서 사랑으로 옮겨진 치유의 관계적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치료모델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통제의 영성(Spirituality of Control), 그리고 돌봄모델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긍휼의 영성(Spirituality of Compassion)이라고 명명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2).[11] 비록 제시하는 관점이 지나치게 편향된 면이 있고 포스트모더니즘적 상대주의에 흐르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통해 분별해 본다), 사랑과 돌봄에 근거한 평신도 상담과 이런 토양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의 공동체의 필요성을 증거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Crabb은 다른 관점에서 전문가적 사역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인간관계 상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이럴 때에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어떤 문제가 소정의 단계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하면 풀린다는 것을 도표와 같은 것으로 시스템화하려는 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다.[12] 특별히 이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더 알고 교제함으로 은혜와 지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협력을 보장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때가 있다. 상담적 전략이 그 계획 뒤에 놓여 있는 진정한 힘보다 더 의지하는 도구가 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명분을 하나님의 명분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도록 주장하면

---

10) James H. Olthuis, *The Beautiful Risk: A New Psychology of Loving and Being Love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1), 40-42.

11) Olthuis, 42-43.

12) 래리 크랩, 댄 알렌더, 정동섭 역『상담과 치유공동체」(서울: 요단, 1999), 165-175.

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상담의 기술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어떤 것이다.

표2. 사랑의 방식: 긍휼의 영성

통제의 영성 (Spirituality of Control)	긍휼의 영성 (Spirituality of Comp
지배적 힘 치료 전문가 테크닉 분리 일방적 이성	**더불어 함께 하는 힘** 돌봄 돕는자 상호교류 연관성 다면적 구상력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느낄 때, 나는 -- 말한 명령한다 고친다/물러난다 방어한다 구조화한다 통제한다 그들의 감정을 옮긴다 해석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느낄 때, 나는 --** 듣는다 초대한다 조화를 꾀한다 격려한다 나눈다 흐름에 맡긴다 감정이입을 보인다 민감해진다
나는 느낀다 -- 염려 피곤함 두려움 개인책임	**나는 느낀다 --** 자유 평안함 자각 공동책임
나는 관심 있어 한다 해결점 해답들 환경들 올바른 것 완수	**나는 관심 있어 한다** 영혼과 영혼이 관계를 맺는 것 느낌 사람 긍휼한 것 상호교류
나는 나의 기대대로 세워지는 사람들 기대한다	**나는 과정을 신뢰할 수 있다**

2. 돌봄 공동체와 말씀 공동체

심리학의 발전과 함께 치료적 도구와 수단들이 개발되고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교회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복음주의 일각에서는 교회가 현대 문화와 건강하지 못한 연계를 꾀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제적 예로 실용주의나 진리에 대한 상대적 평가 성향과 같은 비기독교적 문화 흐름과 함께 치료에 대한 무분별한 관심과 도입을 지적하고 있다.

1) 치료적 민감성과 윤리적 민감성

내용적인 면에서 특히 우려가 되는 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치료적 접근이 윤리나, 더 나아가 궁극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잃게 만들고 현세적이고 감정 중심의 생활을 지향하게 한다는 것이다.[13]

이런 현상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다. 인간 역사 가운데 도덕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은 개인이 욕심을 고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때, 어떻게 개인을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부터이다. 그래서 윤리는 공동체 내에 의(義)의 원리를 세우고 의로운 행동과 덕목들을 제시하여 도덕의 원리를 구성원들이 내면화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내면화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거나 죄의식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내재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실용주의가 도덕을 대치하고, 치료적 민감성이 도덕적 민감성보다 선행하게 되었다. 치료적 민감성이란 사람의 필요에 충실한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감정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내적 자아가 관심 있어 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채워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점차 한 개인이 사

13) Philip Rieff, *The Triumph of the Therapeutic: Uses of Faith After Freud* (New York: Harper and Row, 1966), 54-55;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rtre Dame, Ind..: University of Nortre Dame Press, 1981), 29.

람의 생각과 행동의 내, 외적 잣대와 같은 윤리적 원칙과, 더나아가 성경 말씀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간다. 가치관 역시 인간 개인의 자율적 기준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을 보게 된다. 자율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면, 자연히 사람은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게 된다.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고루한 일이 된다.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본성을 자연스럽게 쫓아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 게다가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에 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나, 덕을 세우고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잃게 되어진다. MacIntyre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은 기준이 무언인가 하는 것에 상관없이 마치 감정주의가 진리인
것 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감정주의는 우리 문화 속에 내재되었다. 도덕에 대한
그럴 듯한 정당성을 제공하고자 했던 계몽주의의 시도는 심각하게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전 문화와 결과적으로 현금에 이르기 까지 전해 온 도덕은 어떤 공적이고 공유적인 도리와
의가 부족하게 되었다.“[14]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는 것이 너무나 쉽게 비윤리적이고 죄악된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감정, 일시적 만족, 개인의 복지, 건강, 정신 안정 등이 구원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성격상 자율성과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다보니까, 상담의 현장에서도 윤리적 기준이 약화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가치나 목적보다는 기법의 탁월함과 개인의 이상 증상을 잘 고쳐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효율성이 중요하게 되었다.

정신치료사가 사람을 돌봄에 있어 중립적 과학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담을 포함하는 치유현장은 윤리나 가치 없이 진전

14) MacIntyre, 48.

될 수 없고 치유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덕과 가치관을 암시적으로 어떤 때는 명백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양한 통상적 정신 치유의 기법들 속에 어떤 과학적 이론이 담겨 있던지 간에 정신치유자의 실제적 현장은 항상 살아있는 인간존재와의 만남이다.[15] 살아있는 인간이 만나서 돌보고 섬기는 상담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나 치유 자체를 목적으로 한 만남에 머무르지 않는다. 의미와 가치가 담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성장을 위한 돌봄이며, 이것은 당연히 신학과 윤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Browning 역시 치유 현장에서의 윤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특별히 한 실례로 윤리에 근거한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수치와 죄의식이 해결되고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용서가 단지 마음의 굴레를 벗게 하고 버거운 짐에서 홀가분하게 하는 도구로서 작용해서는 안 되고 항상 윤리와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다.[16] 용서는 진리와 가치가 결여된 현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돌봄의 관계에는 도덕적 기반이 있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가 있다.

그러나 가치와 진리의 주소를 찾아보기 힘든 일단의 흐름이 실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내에 들어와서 "복음주의 목사는 이제 C.E.O.가 되었고,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심리학자 되어서 이들의 주된 사역이 좋은 관계와 따뜻한 감정을 제공하는 것이 되었다"[17]는 결과를 가져왔다. Nouwen 역시 이 점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나는 철저한 '신학적 성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

15) Don Browning, *The Moral Context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Westminster, 1976), 12.

16) Browning, 102.

17) David F. Wells, *No Place for Truth, or Whatever Happened to Evange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3), 177.

제안합니다. . . .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진정한 신학은 거의 가르치지 않고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행동 과학이 지배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은 성경적으로 포장된 심리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인 질문들입니다.
진정한 신학적 사고, 즉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사고는 실제 사역 현장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견고한 신학적 성찰이 없다면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
사업가의 아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그저 능력 있는 사람, 촉매 역할을 하는
사람, 역할 모델, 부모상, 빅 브라더(big brother)나 빅 시스터 등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나 긴장을 극복하도록 돕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름없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18]

이런 현상은 비단 사회적인 물결에 휩쓸리게 된 영향도 있지만 상담이 목회를 위한 도구로 처음 도입된 이후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일부 실천신학자들의 신학적 성향에도 기인한 바가 크다. 이들은 신앙의 표현을 정신의학적 용어로 대치하였고 영혼을 돌보는 것을 심리학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상담학자인 Rollo May와 Seward Hiltner는 상담의 상황에서 규칙을 말한다거나 윤리를 언급하는 것이 인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19] 또한 현대시대사상이라고 일컫어 지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역시 일조를 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단 하나의 진리란 없으며, 보편적 진리도 없다. 진리는 다른 많은 것에서처럼, 우리의 문화에서, 심리학에서, 인종에서, 성에 있어서 상대적이다”[20]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진리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18) 헨리 나우웬, 두란노출판부 역,『예수님의 이름으로』(서울: 두란노, 1998), 64-65.

19) Rollo May, *The Art of Counseling* (New York: Abingdon, 1939); Seward Hiltner,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49).

있어서는 저것이 진리가 된다. 진리를 주장하고 권면 하고 세우는 일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2)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

이상과 같이 치유 현장의 중립적 관점이 주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권위주의적 지도자와 경직된 교회 환경에 수용적 만남과 치유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 역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의 심리학이나 전문의료 기관으로서의 치유센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상담기관이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문제를 소유한 성도들이 폭 넓은 경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가 그 구성원들의 삶에 있어서 진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복음주의 신학의 기초 위에 서 있는 말씀 공동체이어야 한다. 이 기초 위에서 성도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평신도 상담 훈련과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산되어 지는 것이다. 교회는 보살핌의 기쁨을 아는 헌신되고 은사가 있는 효과적인 평신도 조력자들을 선택하여, 상담의 의무를 깨닫게 하고 훈련 시켜 그들을 공동체의 전 영역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돌보고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회복 시켜야 할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기초 위에 돌봄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을 때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도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진리를 소유한 말씀 공동체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특히 회복의 본질적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돌봄의 공동체는 우리들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말씀 공동체는 진리에 기초한 가치관과 신앙 인격의 형성을 돕는다. 더 나아가 진리 위에 세워진 돌봄의 공동체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회복을 위해 어떤

---

20) Cornellis Venema, "The Reformed Churches in North America: Current Trends and Challenges,『바람직한 한국교회의 모델』(서울: 개혁신학회 학술세미나, 2003), 13.

진리가 필요로 한지, 어떻게 치유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해를 가져오게 하는 터전이 된다. 돌봄의 공동체가 그 역할을 다 할 때, 그 공동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고, 그것을 그들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우리가 돌봄의 공동체 안에서 동료 신자들과 열려진 대화로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직시할 때, 우리 안에 부끄러움만 되었던 죄의 문제들이 진실하게 다루어지는 신뢰할 만한 외적 장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곳에서 죄와 좌절로 인해 고립되었던 자리를 툴툴 털고, 회개와 용서로 향하는 진리의 현장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치유적 요소로서의 돌봄과 신학적 요소로서의 말씀이 교회 내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성을 Mouw는 현대 교회를 진단하면서 강조하고 있다.[21] 그는 특히 선교학자 Paul Hiebert의 배제된 중간계층에 대한 관점을 인용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22] 인간과 사회와 우주의 기원, 목적, 그리고 운명을 설명하고 있는 자연만물에 대한 "상위" 신학의 단계가 있다. 또한 경험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시도하는 하위 단계가 있다. 그러나 이 상위와 하위의 중간에 위치해서 배제되어진 영역이 있고 여기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질문이 있다. 민간종교에서 개종한 이들이 여기에 속하고 이들은. 상위와 하위의 세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답을 얻지 못한다. 이들은 미래의 불확실함과 현재의 삶의 위기, 그리고 모호한 과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사고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을지? 내 아이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지?" 우리와 우리 이웃들은 현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깊은 절망에 고통 당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질문과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

21) Richard J. Mouw, *Consulting the Faithful: What Christian Intellectuals can Learn from Popular Religion* (Grand Rapids: Eerdmans, 1994), 69-71.

22) Paul G. Hiebert, "The Flaw of the Excluded Middle,"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10, no. 1 (January 1982).

없을 때, 사람들은 "분명한 해답을 그들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점쟁이에게 돌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너무나 매일의 삶에 있어서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23]

Hiebert는 이 중간 영역의 주제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다시 말해 나라와 사람들 간의 그리고 개인들 간의 분쟁과 갈등에 대한 전인적 신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분의 계획과 치유에 대한, 그리고 조상, 영. 이 세상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그리고 고난과 불운과 죽음에 대한 신학을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24]

우리 이웃들이 다양한 고통 중에 처해 있을 때, 상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신학적 진리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합력하여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성장한다. 이 진리는 교회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확인해야 할 변치 않는 불변의 사실이다. 더불어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개인이 구체적으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분별하고, 가르침 받고, 치유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돌봄의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이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는 훈련이 평신도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매일 매일의 삶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만남이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돌봄의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어진다.

치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과 말씀의 이중 구도를 Henry Cloud는 은혜와 진리라는 말로 설명했다.[25] 은혜가 있는 곳에 용납이 있고 이는 우리를 관계에로 이끌게 된다.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관계적 측면을 전달하고 있다. 이 요소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허는 구속의 은혜로 드러났다.

---

23) Hiebert, 44-45.

24) Hiebert, 46.

25) John Townsend, 양은순, 오부운 공역, 『변화와 치유』 (서울: Home, 2001), 14-28.

더불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서로 진정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도록 해서 구원과 치유를 열매 맺게 한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값싸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은혜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었다. 은혜 안에 거한다고 옛 구습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 방향성이 필요하다. 문제를 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다. 진정한 친밀감이라는 것은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 진리를 함께 제시할 때, 진정한 친밀함을 형성하게 된다. 참된 친밀함은 언제가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기에 그렇다.[26] 방향성을 제공하는 진리의 속성이 여기서 등장한다.

진리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공한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차이를 드러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방향을 보여주며, 더나아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양식이 된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용납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알았고, 어떤 죄악 가운데 처한지를 분별하신 상태에서 그녀를 용납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죄성에서 기인한 욕망과 그런 행동에 빠진 한 여인을 용납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미래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신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요8:3-11).

그러나 은혜가 없는 진리는 인간의 여러 가지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필요에 대한 감각을 잃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 율법은 인간이 그대로 살아가야 할 청사진 혹은 모델이다. 율법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제한점을 설정해 준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율법은 우리를 멸망시킨다. 성장의 두 요소인 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그런 관계, 즉 실제적인 분(진리)과 끊어지지 않는 연결(은혜)을 맺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27]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26) Ibid., 14-18.

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 .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1:17).

율법적인 교회와 건강한 치유그룹을 비교해보면,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공동체의 정서 상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치유그룹에서는 완벽하다는 것이나 소위 아닌 척하는 것을 그 공동체의 문화가 용납하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더 그럴 듯 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더 나빠질 수 있다. 치유그룹 속에서는 사람들이 더 나쁘게 보이지만 더 나아질 수 있다. 심령이 고갈된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 가운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돌봄의 공동체를 위한 제언

현대 교회의 다양한 구조 속에서 성도들이 수용감과 서로 나눌 수 있는 자유와 친밀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체감을 느끼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기 어렵게 되었다. Peck이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닐 뿐 아니라, 한 몸체나 하나의 공동체도 아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헌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28] 그는 공동체 형성과정은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는 투신(投身)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도중에 그만두지 않겠다는 참가자의 결단, 깊게든 얕게든 관계하여 거기 머물겠다는 결단, 혼란과 마음 비우기의 고통을 겪겠다는 결단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불어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억해야할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포용성인데, 이는 모든 공동체가 자신을 유지해 가면서 씨름해야 하는 문제다. 둘째, 투신할 가치가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투신하지 않은 채 머물게 된다는 사실이다. 셋째, 예수님의 본을 추적해서 그분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

27) Townsend, 26.

28) Scott Peck, 363.

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살펴보아야 한다.[29]

1) 제자화와 돌봄의 공동체

제자화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지상명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하고 이들 새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라는 지상명령을 주셨다. Bellah는 다음과 같이 제자도에 있어서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우리는 제자도의 중심적 측면인 돌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하는 의미에서의 돌봄이다. 이것이 현대의 정신에 따르면 너무나
> 소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은 라틴어
> *caritas*, 신약의 헬라어 *agape* 또는 사랑이다. 마태 25장의 "우리가 소자 중의 한 사람에게
>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는 돌봄을 의미한다 돌봄은 공동체의 표현이고 단지 공동체
> 내에서 깨달아 질 수 있다. 부주의한 힘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돌봄이 있는 힘은 공동체를
> 강화시킨다. 두 번째의 돌봄의 의미는 즐거운 축제로서 완수해 가는 것이다.[30]

Bellah는 덧붙이길 "제자도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창조된 존재로 여길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은 존중, 존엄, 책임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전문가라는 말이 너무 자주 단지 자격을 좁게 규정하는 전문 기술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는 종종 같은 엘리트 그룹이 아닌 이들에게는 거

29) Townsend, 363-367.

30) Robert N. Bellah, "Discipleship and Citizenship in the Workplace," (The Annual Mark Gibbs Lectureship of the Versper Society Group,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April 27, 1990), 6.

만하고 무신경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오랜 그리고 깊은 의미는 소명 또는 천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다. 사람을 교만하거나 정중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프로는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진정으로 그리고 충심으로 섬기는 것이다.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31]

Collins는 우리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상담에서 성경을 진지하게 취급한다면 지상명령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으며 성경에는 제자훈련의 개념이 너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상담을 제자훈련 상담 (Discipleship counseling) 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32] 더나아가 그는 제자화 상담에 있어서의 치유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 즉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돌봄의 중심지로서 그 안에서 용납이 이루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서로 성숙해가는 유기적인 연합체인 그리스도의 몸 된 역할을 해야 한다. 제자화 상담을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주로 평신도가 제자화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 한 것이 도전을 주고 있다. 평신도 상담은 이런 의미에서 제자훈련에 대한 이해가 이미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한 지혜로운 접근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Sweeten 은 교회 내의 제자화 상담의 중요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제언하면서, 특히 정신교육적 모델 (Psychoeducational Model)을 말하고 있다.

1. 교회는 치유적, 성장적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

2. 일반적으로 평신도는 고통에 처한 이웃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을

---

31) Bellah, 13.

32) Gary R. Collins, 정동섭 역,『훌륭한 상담자』(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21-24.

수 있다

3. 교회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공동체이다.

4. 가르침과 소그룹 활동에 근거한 정신교육적 모델(Psychoeducational Model)은 어려움에 빠진

이를 돕는데 효과적이다.

5. 돌봄의 공동체, 소그룹, 가족은 곤란에 처한 이를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6. 예방과 치유에 있어서 정신교육적 모델(Psychoeducational Model)은 효과적이다.

7. 영적인 그리고 초월적 가치는 어려움에 빠진 이에게 중요한 것이기에, 죄, 수치, 죽음 후의

삶, 궁극적 의미 같은 것이 이야기 되어야만 한다.

8. 문제를 직면해서 사람들은 공동체 내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9. 많은 교역자들이 자신들 스스로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상담하도록 다른 이를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10. 문지기가 되는 그들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기술을 포함한 정신 건강을 위해 필요한

관계 맺는 기술이 부족한 상태이다.

11. 교역자와 기독교인 지도자는 좀 더 효과적인 상담자와 상담 훈련자로 훈련받을 수 있다.[33]

근래에 많은 교회가 적용하고 있는 셀(Cell) 사역 역시 그 내용에 있어서 돌봄적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셀 사역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 회복에 주된 관심을 두고 셀로 지칭되는 소그룹을 교회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 삼아 그 속에서 공동체 경험을 하게 하는 모델이다.[34] 기초 공동체로서 셀은 혈연과 친족의 의미가

33) Sweeten, 17.

34) 셀에 대한 다수의 책과 사역들이 한국 NCD(Natural Church Development)를

있다. 셀 그룹은 영적 가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영적 지도자인 리더가 구성원들 각자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성원 상호간은 형제, 자매로서의 역할 관계를 가진다. 이는 기능과 역할적인 모형만을 닮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개방적이며 자신의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 놓고 서로 용납한다. 가족들은 서로의 삶을 책임지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가진다. 가정에서 모이고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신자들간의 사랑의 교제, 양육, 그리고 서로간의 필요와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우는 돌봄을 시행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담적 요소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 예방과 돌봄의 공동체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병리 및 이상 심리적 증상에 대한 치유와 함께 그 필요성이 많이 제기된 것이 예방에 대한 것이다. 특히 오랜 시간과 힘이 소비되는 치료적 접근에 비해서 동일한 노력에 비해서 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은 앞으로 지향해야할 상담의 한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예방적 역할에 있어서 간과되어 왔었던 교회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자체의 사정 역시 상담의 필요성이 많이 회자되었지만, 예방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돌봄과 말씀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사명을 행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중요한 유익은 성도들의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게 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Bufford와 Buckler는 예방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돌봄의 공동체와 연결해서 설명한다.[35]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www.NCDKorea.com). 빌 벡햄, 임원주 역,「제2의 종교개혁」(서울: 한국NCD, 2001); 로렌스 콩, 최봉실 역,『사도적 셀 교회』(서울: 한국강해설교학회출판부, 2001); Ralph W. Neighbour, *Where Do We Go from Here?: A Guidebook for the Cell Group Church* (Houston: Touch, 1990); 조엘 코미스키, 박영철 역,『셀 그룹 폭발』(서울: NCD, 2000).

35) Rodger K. Bufford and Robert E Buckler “Counseling in the Church: A Proposed Strategy for Ministering to Mental Health Needs in the Church,"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6 (2,

첫째, Primary Prevention으로서 정신적인 문제의 초기 증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일종의 천연두 주사를 어렸을 때 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병리성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특히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고 효과적인 공동체의 지원 체제에 몸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가정 사역, 그리고 돌봄의 모임들을 통해서 소그룹 내의 소속감과 공동체적 지원 그룹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개인의 여러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중요한 힘이 되어진다. 또한 올바른 진리에 대한 교육과 제자훈련, 전도의 헌신, 죄의 인식, 거룩한 삶과 행동의 도전 등이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점은 영적 자원을 능력 있게 활용해서 성도들을 온전함으로 이끌었던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공동체를 통해서 구성원 개인, 개인이 이런 사랑 안에서의 진리와 돌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둘째,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훈련하게 하는 것, 셋째, 소그룹을 활성화해서 서로 간에 지원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병을 돌보고, 짐을 나누어 지며,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것 등), 넷째, 실제적으로 위험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심적인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소외된 이들(고아와 과부 등)을 돌보는 것이 포함된다. 다섯째, 사회 내의 구조적, 실제적 불의와 악을 대처하고 개혁해 가는 것이다(고전 12:26).

둘째, Secondary Prevention으로서 초기 조치를 통해서 병이 심각해지거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초기 진단으로 거의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것은 고통과 고난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영적 건강을 좀 먹고 있는 상처 난 곳을 돌보는 것이다. 일종의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조치하는 것과 같게 비유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응급조치를 취해준다. 그리고 응급병원에서는 상처의 정도, 시

1987); 26-28.

급성 등에 따라 추가의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제공한다. 특히 신체도 그렇지만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위기 가운데서 적절한 초기 조치와 도움은 병의 지속과 심각성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도움에는 격려, 위로, 권면과 위기에 대한 상담, 조언 등과 함께 전문상담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예방은 근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Tertiary Prevention으로서 만성적 합병증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재활과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수족이 절단된 사람을 위해 인조 팔, 다리를 제공하고 훈련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돌봄의 공동체인 교회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노력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터전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

III. 닫는 글

상담 그 자체는 소명이 아니다. 우리는 상담 하도록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담의 사역을 통해 기독교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36] 평신도 상담은 단지 전문 상담을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사역이 아니다. 성도 된 개인이 기독교인의 모습을 채워 가는 본질적인 사역이 남을 돌보는 평신도 상담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돌봄의 공동체로서 그 토양을 온전하게 만들어 갈 때,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성취해갈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는, 다시 말해 성도들의 고난이나 삶과 유리된 상태에서 전달되는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있어서도 돌봄의 공동체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교회의 본성은 공동체적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

36) Ray Anderson, *Christian Who Counsel* (Grand Rapids: Zondervan, 1990), 163.

스도의 핏 값으로 세우시고, 그 교회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나누며 서로의 짐을 질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게 된다. 초대교회가 비록 전문적인 정신 건강을 위한 치유사역자가 없었지만, 도움과 치유와 회복을 주는 공동체가 있었다. 이런 공동체적 경험과 치유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셨던 교회의 목적이자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 현장에서 평신도 상담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돌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세우는데 큰 유익을 주기를 소망한다. 이런 교회의 돌봄의 문화가 더욱 평신도 상담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고 더 나아가 전문적인 상담의 방법과 기술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CI

Abstract

Church Community for the Vitalization of Lay Counseling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and extended family. Believers are a member of the family. Apostle Paul's expression of the church and the human body (1 Cor. 12) as well as his emphasis on growth, healing and systemic interconnection (Eph. 4:11), are powerful images of a healthy community working together. God has called us as Christian to minister to one another and to bear one another's burdens in our church. The church should be a community of helping for many hurting people in this broken world. The lay counseling helps restore the purpose and mission of the church. Trained lay counselor in the church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extending pastoral care to all members of the church. In churches where the pastor believes that all problems can be resolved by only exhortation, or is convinced that the church should avoid any appearance of being a therapeutic community, lay counseling are likely to flounder. A Christian, biblically-based approach for vitalizing lay counseling ministry by nonprofessional is described in this paper, It emphasizes the following: (a) a model that sees the church as a caring community where care, counsel, and healing are natural parts of church life. Specialists for cure are developed out of the context of caring process that encourage each member to find his or her place of ministry in the Body of Christ; (b) comparing

caring community with cure model and truth community; (c) the central place of Christian values and intervention in lay counseling. A biblical approach to counseling that explicitly utilizes Christian religious values or perspectives and intervention makes unique contributions to counseling effectiveness; (d) lay counseling and discipleship training. Lay counseling enables counselees to reach their fullest potential and to become involved in growth as disciplers for Jesus Christ; (e) lay counseling and cell ministry; (f) lay counseling and the need for the church to provide prevention.

* Key Words
Caring Community, Lay Counseling, Truth Community, Discipleship Counseling, Prevention

KCI